

복음에서 삶으로 -2 하느님의 말씀

지난 번에,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살겠다는 우리의 서약에 대하여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프란치스칸에게 특별히 중요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 잠시 묵상을 하겠습니다.

묵상하기에 좋은 말씀이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 분 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1,1-2)**

우리는 한 처음부터 계셨던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또 그 분이 사랑하는 아드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고, 하느님의 말씀인 말씀의 말을 뜻합니다. 이제 복잡한 신학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우리가 복음에서 삶으로 이해하는 데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모든 것이 그 분을 통해서 생겨났고, 그 분 없이 생겨난 것은 없다. (요한 1,3)

하느님이 말하시자 모든 것이 사랑하는 아드님을 통하여, 아드님을 위하여 생겨났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납니다. 보나벤뚜라에 의하면, 삼위일체의 하느님은 넘치고, 전부이고, 완전하고, 풍요로운 사랑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을 하시고, 삼위일체 안에서 넘쳐나는 무한한 사랑안에서 창조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영원으로부터 나신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 여러분과 나는 입밖에 내어지고 하느님의 “작은” 말들이 됩니다. 그 말들은 작지만, 성부께서 우리를 생겨나게 하신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찬 말들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육욕이나 남자의 욕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요한 1,12-13)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요한 1,16)

요한복음의 머릿글은 하느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로 부터 왔다는 현실을 받아 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하신 특별한 말이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가 복음이 되는 근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들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서약때에, 처음에 말로 우리를 생겨나게 하신 성부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선물로 돌려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제직을 통하여 우리는 성찬 제물이 되고 우리를 희생함으로써 성부의 사랑에 우리의 사랑을 돌려드립니다.

성부께서 육화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저는 말씀의 말들인 복음을, 신앙을 증언하는 제 3 자의 이야기로 보는 것은 잘못
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접근 방법은 아니지만 그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복음에서 한 걸음 떨어지게 하여, 복음을 진정한
삶의 책이 아닌 단지 하나의 예로 듣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과 우리의 특별한
말이 하나가 되어 생활의 복음이 되며, 이 좋은 소식은 되풀이되어 이 세상에
새로운 삶을 계속 불어 넣어줍니다.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바로 사랑의 하느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이 말이 살아있는 복음으로 꽃피고 수많은 복음들이 되어,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숨쉬고, 치유시키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사랑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더불어 창조하도록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분의 말씀과
하나가 된 우리의 말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편안하게 느낄수 있는 자리,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안전하게 변화되어 그들에게 계획된 복음으로 재창조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이 하신 말 하나 하나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말이며 이 말들은 창조를 합니다.
이것을 프란치스코 성인은 모든 창조물, 생물이나 무생물을 끝없이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하셨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삼위 일체이신 주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모든
것을 사랑과 아름다움의 눈으로 볼때, 그것들은 하느님의 사랑의 표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존귀합니다. 창조물 모두는 사랑받고, 보살펴지고, 존귀하게
다루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사용하되 남용하지 않도록 주어진
하느님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양성 담당으로 쓰는 마지막 “공식적” 인 글을 통하여 그간의 여러분의 사랑과
협조, 그리고 제가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하느님의 모든 창조물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이 세상이 알도록, 여러분과 형제회에 기도와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같이 하시기를

Fitz